

2019년 희곡우체통 6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평범한 가족>

<평범한 가족>은 가족 간의 소통 불능과 폭력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런데 ‘평범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다니 가슴이 서늘해지네요. 사실 이 작품만이 아니라 최근 투고작 중에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폭력을 성찰하면서 그 진원지로서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세대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균열과 세대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겠지요.

<평범한 가족>은 노골적인 정도로 솔직하고 절박하게 그 위기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모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성이나 맥락을 구축하지 않고 현상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주저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작품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언어가 활달했고, 그 싱싱한 기운과 절망으로 질주하는 극적 상황의 대비가 묘한 여운을 주었습니다.

이번 희곡우체통 낭독회에선 전망을 찾지 못해 터질 것 같은 성난(!) 세대의 민낯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화와 소통을 포기하고 달려온 불균형한 한국적 근대화를 반추하며, 혹여 이 절망을 무마시킬 지점이 존재할지 탐색해보고 싶네요.

작가란 잠수함에 넣던 토끼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이야길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먼저 죽어 위험을 알리는 토끼처럼,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와 사투를 벌이는 신진 작가의 이 불편한 싸움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그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시고.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시고.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